



한·중 주택업계 대표단 회의

방지산업협회,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주력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6월 북경에서 중국의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방지산업협회의 초청으로 양국의 주택·부동산업에 대한 세미나와 현지 주택단지 시찰 등 양 협회 간 협력 교류를 위한 대표단 회의를 개최했다. 2006년 12월 15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양 협회 간 교류의 장을 다녀왔다.

에디터 | 김대환 · 사진 | 이충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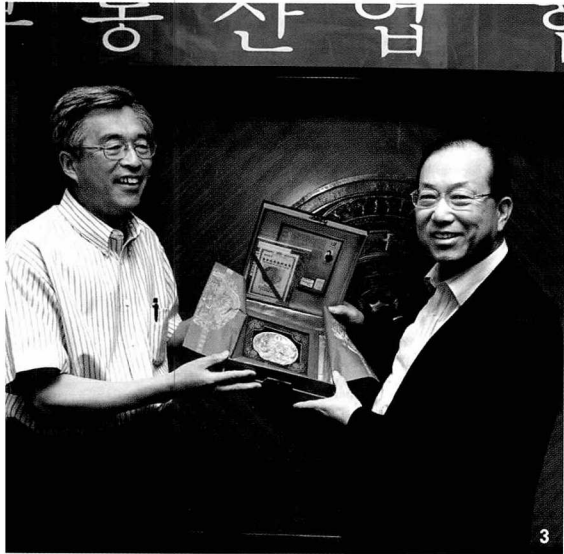


한 국주택협회는 6월 27일, 북경 금우가업 방지산개발유한회사 회의실에서 중국 주택업계를 대표하는 방지산업협회의 초청으로 주택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한·중 주택업계 대표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작년 12월 15일 양 협회의 민간주택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이뤄진 자리였다. 한국 측에서는 신희 회장을 비롯한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 또한 송춘화 회장을 비롯한 주중일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주택·부동산업에 대한 현안 검토와 문제점을 폭넓게 다뤘다. 송춘화 방지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하자”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임을 통해 양국의 주택시장을 이해하고, 나날이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으면 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신희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한·중 민간 차원의 주택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답례를 표시했다.

주요 관심 사항으로 거론된 회의의 주제로는 양국 간 주택 분야의 교류협력사업과 한국의 중국으로의 주택 시장 진출 시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송춘화 회장은 ‘중·한 부동산 시장 및 관련 정책사항’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개발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고 공급량이 급증하며 구매력이 왕성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은 이미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지주산업으로 발전했다는 분석이다. 송 회장은 “하지만 저소득층은 주택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가격 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며 “주도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와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 자문위원인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는 “한·중 주택 분야의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중 협력네트워크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난 외환위기 이후 중국 시장의 진출 실패를 거울 삼아 중국의 개발기법과 건설기술, 한국의 부동산 개발 성공 사례 등 시장 정보를 통한 양측의 토대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차원에서 △공동사업 추진 △주택 박람회 추진 △주택관련 정보 제공 △양국 주택 및 부동산업체간 기술시찰단 교류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전략을 설정했다. 한국주택협회에서 중국 진출 시 장애 요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지사 설립을 허용치 않는 중국의 건축법을 부분 수정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케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건설시공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에 제한을 둔 중국 정부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에 대해 중국 측 주중일 부회장은 “주택 분야와 관련해 정부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중국 내 5만여 명의 개발업자끼리 경쟁이 치열해 국내·외 기업에 평등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정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덧붙여 앞으로 협회가 앞장서 머지않아 인허가 절차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 갖는 이날 양 협회의 모임은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통해 주택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류협력사업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상호 협의해 조 절해감으로써 양 국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



3



5

1 한·중 주택업계 대표단들의 세미나 모습. 2 양국 간 대표단들끼리 기념 촬영하고 있다. 3 양 협회장이 자국에서 마련해 온 선물을 교환하며 힘박 웃음을 짓고 있다. 4 송춘화 방지산업협회 회장. 5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